빛의 사람들

2021.3 제307 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김도훈 라파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성 요셉의 해'에 성 요셉 성월

우리는 3월 '성 요셉 성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성 요셉 성월'은 매우 뜻깊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께서 작년 12월 8일, 요셉의 배필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8일까지를 '성 요셉'의 해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역사상 유례없는 인간적 사회적 시련으로부터,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보호자이자 가톨릭교회의 수호자이신 요셉 성인의 도움을 통해 위로와 힘을 받고자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셨지요. 더불어 이 기간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면 전대사가 수여됨을 알려주셨습니다.

1. 적어도 30분 동안 주님의 기도, 혹은 요셉 성인에 대한 묵상을 포함한 하루 영성 피정에 참여하기.
2. 의로운 사람 요셉 성인의 모범을 따라 자비로운 육체적 또는 영적 활동을 하기.
3. 성가정의 보호자였던 요셉 성인의 모범을 따라 가정에서 그리고 약혼자끼리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치기.
4. 노동자이신 요셉 성인의 모범을 따라 자신의 활동을 요셉 성인의 보호에 맡기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노동이 더욱 품위를 얻도록 기도로써 나자렛 노동자의 전구를 청하기.
5. 내적 외적으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온갖 종류의 박해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로받도록 성 요셉께 기도하기.

사실 요셉 성인에 대해 성경은 크게 비중을 두고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요셉 성인이 얼마나 위대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혼전 임신한 정혼자 마리아를 내치지 않았으며 내적 믿음과 양심에 따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침묵과 신중함 속에서 성가정을 지켰고 보호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목수 일을 알려주었고 든든한 아버지로서 후견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요셉 성인의 받아들임과 보호 없이 예수님의 구원사업은 있을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마리아의 공경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공경 가운데 하나를 구세주의 보호자에게 드렸고, 수많은 보호도 요셉 성인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전대사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요셉 성인의 보호 속에서 이 시국이 잘 지나가고 많은 교우가 위로와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모든 활동을 요셉 성인에게 맡겨드리고,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갇혀 있든, 밖에 있든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실천사항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느님의 은총과 요셉 성인의 전구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영육으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2월 1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10% 이하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회관 3층에서 봉헌되었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자 돼지 떼가 호수로 뛰어들어간 복음 말씀에 대하여 "'내 돼지가 죽으니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라는 마을 사람들은 현재의 재산 피해만을 생각하는 오늘날의 우리와 다르지 않다. 말로는 예수님을 외치지만, '내 돼지만 잃지 않으면 된다, 내 집 값만 잘 보존하면 된다'라며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다."라며, "예수님께서는 수천 마리의 돼지를 죽이더라도 사람을 택하심을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 등 안전 수칙을 지켜 미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정본부 간담회

2월 4일(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영희 교정본부장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님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점 및 요구사항들을 나누며, 종교적인 역할 등 수용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도움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집단 감염 사태를 겪은 교정시설에 지원과 관심에 감사를 전하며, 감사패 전달식도 이어졌습니다. 기증받은 물품들은 서울동부구치소, 경북제2교도소 등에 분산 수용된 수용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각 교정시설 설날 떡 지원

2월 8일(월)~10일(수) 각 교정시설에 설날을 맞이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체 수용자들에게 떡을 보내드렸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1,700개, 서울남부교도소 1,300개, 서울구치소 2,600개, 서울남부구치소 2,150개의 떡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접견과 활동이 제한되어 지쳐있을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치소 첫날의 기억

최숙경 카타리나_ 서울구치소 여사 봉사자

저는 어느 날 본당 자매님이 '카타리나! 서울구치소 봉사같이 다니지 않을래?'라는 이야기에 쉽게 '그래갑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구치소 입구에서 검문을 마치고 철문을 2개 통과하여 들어갔습니다.

강당에 들어가 앉아있는 수용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살짝 본 순간, 웃음기 없는 표정과 그리고 밝고 빛이 나는 눈빛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미사를 잘 마치고 나면 떡 간식을 나누어주고 나옵니다.

봉사를 다시 갈까 말까 망설이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유일하게 기다리는 날이 신부님이 집전하는 미사 참례, 봉사자들과 만남, 그리고 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매주 화요일이면 수용자들께 전해줄 떡을 싣고, 수용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갑니다.

서울구치소 첫 문을 들어선 순간 천사들께 청하오니, 마리아의 성심 안에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지켜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구치소 봉사를 들어갈 수 없지만,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서구 여사 봉사자들이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다 같이 만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였으면 합니다.

힘내시길!

시프라와 푸아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올 때 이집트는 풍요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고향 가나안뿐 아니라, 이집트 역시 기근이 심했지만, 그럼에도 파라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좋은 땅"(창세 47,6)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습니다(탈출 1,7).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탈출 1,8)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처지가 달라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요셉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대기근 시기에 요셉의 지혜로 무사히 극복했던 그 이야기, 주변 민족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는 혹은 무시하는 정치 지도자는 자신과 타인을 가르고 자기 민족과 이민족을 갈라 공포를 조장합니다.

>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탈출 1,9-10)*

이러한 공포는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부역 감독을 두어 감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 탈출기는 이렇게 자신들이 어떻게 노예로 떨어졌는지에 대해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이집트가 처음부터 노예의 땅은 아니었고 지옥 같은 곳은 아니었음을,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구분과 차별이 생기면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지옥이나 감옥은 장소적 개념보다는 상태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비단 오래전 이집트에서만 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음을 교황님은 지적하십니다.

> *이주민들을 마주하여 의심을 키우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자기방어 본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 개인 또는 한 민*

족은 다른 이들에게 더욱더 창의적으로 마음을 열어야만 풍요로워진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주어 결국 우리가 옹졸하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종 차별주의자가 되어 버릴 때입니다. ("모든 형제들", 41항)

해방은 위대한 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임금은 이 차별을 더욱 강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태어난 태아가 남자이면 죽여버리라고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임금의 명령입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 히브리 민족의 힘없는 여성, 보잘것없는 산파가 자신의 생사를 쥐고 있는 이집트 임금의 말을 거역합니다.

산파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분부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아이들을 살려 주었다. (탈출 1,17)

탈출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 임금의 명령이 아닌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따른 두 여인의 이름, 시프라와 푸아를 적어놓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개인일 수 있겠지만, 자기 일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른 것이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해방은 산파들의 양심을 따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임금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폐쇄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하여 상대를 노예의 삶으로 이끌었지만, 시프라와 푸아는 두려울 수 있는 임금의 명령 앞에서도 하느님을 경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앞날은 언제나 두렵지만, 전염병으로 모든 것이 불투명하여 더욱 힘겹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타인에 대해 폐쇄적이기 쉽습니다. 더욱이 갇혀 있는 삶이면 더욱 힘에 부칩니다. 격리 속에서 우울합니다. 시프라와 푸아는 하느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이웃 사랑 실천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한 그 사랑의 실천이 큰 해방의 물꼬를 텄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마음을 받았습니다

상가들이 즐비한 아케이드 한편에 은은한 조명과 편안한 분위기의 뷰티샵을 운영하는 창업자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예약 손님으로 꽉 찬 일정 중에 식사 시간을 쪼개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한 얼굴로 저희를 맞이해 준 민OO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

3년 전쯤에 사회복귀를 준비하던 중 안내 책자로 기쁨과희망은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복귀 후에 신용이 바닥이라, 대출도 제한이 되고 나이도 있어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쁨과희망은행이 생각났고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창업교육은 어떠셨나요?

교육 중에 홍보에 관한 강의가 제일 도움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프리랜서 마켓 정보를 주셨고, 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일이라 창업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필요했던 것은 홍보 효과였습니다. 프리랜서 마켓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 창업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자금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서, 취업하려고 하니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뷰티 업계는 사실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었지만, 할 줄 아는 게 뷰티 업계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 창업하고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샵앤샵으로 시작했는데 손님이 없어서 월세 내기 빠듯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속는 셈 치고 창업교육 중에 알게 된 프리랜서 마켓으로 계속해서 홍보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손님이 늘었는데, 샵앤샵으로 들어와 있던 터라, 메인 샵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자리를 옮겨 재창업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기존의 손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새로 회원이 되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잘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에 바라시는 점은?

금전적인 것 말고도 본부장님께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 속사정을 어디에 이야기할 데가 없지만, 본부장님은 제 하소연을 다 받아주십니다. 설치비를 줄이려고 셀프인테리어를 했는데, 직접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돈보다도 마음을 받은 게 정말 감사합니다. 수시로 연락을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재능기부로 피부미용 쪽으로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마음만 있다면 여성이 창업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제 뷰티샵을 지금 이곳을 본점으로 가맹점을 10호까지 내고 싶습니다. (웃음)

+찬미 예수님

신부님! 벌써 해가 바뀌고 사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삼켜버린 지금, 그래도 신부님께서는 늘 바쁘게 보내시며 올해 교정사목 준비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신부님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이곳에 와서 꼭 1년을 보냈는데, 그때 시작한 요한묵시록 성경 필사를 오늘 다 마쳤습니다. 성경 필사는 제게 마음이 힘들 때 힘과 용기를 주고, 하느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꼭 1년의 세월에 노트 50권을 쓰면서 제 마음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부님께서 이끌어 주신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는 과분한 은총이지만, 앞으로 늘 성경을 가까이하며 하느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에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보내준 떡 잘 먹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내온 유일한 설 선물이었고, 예쁜 스티커와 깔끔한 포장으로 수용자들이 다들 좋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문구가 있는 스티커는 잘 떼어서 방에 붙여 놓고 늘 보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 신부님께서 집전하시는 미사에도 참례하고 접견이나 운동, 목욕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곧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봄은 다가왔지만, 꽃샘추위도 있고 날씨가 고르지 못하니 건강 잘 살피시고 주님 안에 복된 나날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1. 02. 14.
다니엘 드림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는 형제님이 현대일 신부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형제님께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2021년 3월 8일(월) 사단법인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0차 정기총회 및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는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 4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4월 5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4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4월 월례미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채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채널

부산교구 양산 성모울타리

♥ 부산교구 양산 성모울타리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체 성모울타리는
일반 기술자와 출소자들이 함께 우리밀 100%로 빵을 만듭니다.
인터넷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 : **이레우리밀**

※ 구입문의 : **055)367-2232** / 3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농협 351-0425-2610-23 (이레우리밀)
신한 140-012-398858 (이레우리밀)

- 수제청국장식빵 ₩5,000
- 수제상투과자 ₩5,000
- 수제단팥빵 3개 ₩5,000
- 수제통밀식빵 ₩5,000
- 수제엄마빵 5개 ₩10,000
- 수제소보루빵 3개 ₩5,000
- 우리밀호두과자 30개 ₩10,000
- 엄마찰보리빵 20개 ₩10,000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14~2/16)

2021년 1월~2월에는 **김재성, 박성자 아나스타시아, 방순옥 베로니카, 백현복 엘리사벳, 서원순 율리아나, 이동선 히야친타, 이혜영, 정순자 에밀리아, 황석재 루카**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박기주 미카엘 신부, 신미자 세실리아, 이정원, 전경애 마리아, 지민용 야고보, 홍옥임 안젤라**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